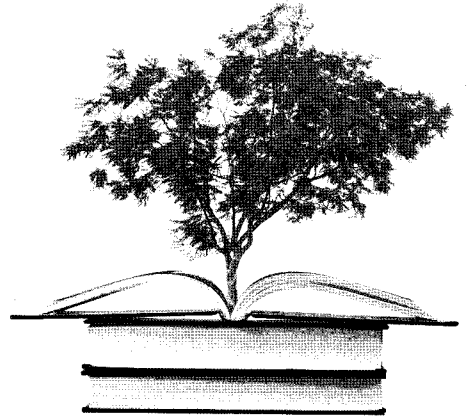


대학에
바란다

대학에 바란다*

송 현 섭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I.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관련 문제는 대학 입시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사교육비 지출, 반값 등록금 문제, 지역별 주택 가격의 차등 등 교육과 연관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이면에는 직·간접적으로 대입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대학별, 전형시기별,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로 수없이 많은 전형유형과 예측 불가능한 전형기준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은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전형시기별로 학생들에게 적성과 학업 능력에 맞는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은 대학과 협의하여 신뢰도가 높은

대입관련 자료와 정보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며, 대학은 분명한 학생 선발 지표와 관련 자료들을 진학지도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입시 현장을 바꿀 수가 있고, 추락한 공교육의 위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II. 대학에 바란다

1. 학생 선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많은 대학들이 학생 선발의 의미를 ‘좋은 학생의 선점’에 두고 있다.

여기서 대학이 요구하는 ‘좋은 학생’의 의미는 고교의 학업 성적이나 수학능력시험성적이 좋은 학생 등 정량화된 성적순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입학사정관전형의 도입으로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역량까지도 평가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

으로 전체 정원대비 10%가 조금 넘는 모집 인원에 적용시킬 뿐이다. 그나마 현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대국민 홍보덕분에 많은 대학들이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고 생각한다. 염려되는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고 정책기조가 흔들릴 때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이 과거 성적 중심의 정량적 평가 지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04년 이후부터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꾸준하게 추진해 온 잠재력 중심의 학생 선발 기조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발 주체인 대학들이 변해야 된다.

지금까지 많은 대학들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에도 벅찬 수많은 전형 유형들을 만들어 내고, 논술, 심층면접 그리고 적성고사 등의 대학별고사를 만들어 냈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최저학력기준으로 보호막을 쳐 왔다. 서울의 많은 대학들이 정시전형의 결과보다도 높은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사례이다.

대학이 좋은 학생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학생들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여, 과외나 학원수업 등 사교육의 장으로 내몰렸다. 더불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추락해 왔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선발한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업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학과 특성에 맞고 자질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이 책임지고 가르쳐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좋은 졸업생을 사회에 배출하는 것도 대학의 책무성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생선발 유형과 전형 방법을 대폭 줄이고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의 질적 제고도 도모되어야 한다.

2. 고등학교-교육청-대학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고등학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을 계획된 방법으로 선발하여 원하는 인재상으로 길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

2012학년도 수시전형 중 일부대학에서 시행 중인 고교교육연계전형은 교육청이 인정한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으로 고교-교육청-대학간 협력관계에서 태동한 공교육 활성화 차원의 대표적인 전형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학입시 기간 중에 고등학교와 대학이 대립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는 대학들은 고등학교 입

시 현장에서 애타게 요구하는 입학관련 정보를 일부 협력 고교 정도에만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심지어 사교육기관이 공교육 기관보다 먼저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 상담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입학실적이 저조한 고등학교는 입학관련 정보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의 무관심과 차별적 대우로 전형계획의 홍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는 입시주체인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과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관련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정부 내 관련 부처간의 협의체 구성과 이를 관장하는 대입관련 컨트롤타워를 교과부나 대교협 내에 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 수시전형과 정시전형계획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여 일선 고교에 알리자

대학의 전형계획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전형계획의 늦은 발표와 잦은 수정은 학생은 물론이고 일선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무척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다.

대학의 인재상과 지원자들의 학력 수준이 해마다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형유형이나 전형일정, 시기별 전형방법을 자주 바꾸는 것은 학생 양성보다 선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수과정-계열을 결정하고 2학년부터 결정된 과정별로 선택과목을 공부한다. 그리고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이수과정을 결정하여 공부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대학 진학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적성과 학업 수준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전에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확정, 발표해 주어야 한다.

4. 학생복지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 관련 기회비용을 줄이자

수시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서울소재 대학에 서울거주 학생과 지방거주 학생이 똑같이 지원했다 하더라도 두 학생의 입시 관련 기회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비싼 교통비와 숙박비, 식사비 그리고 동반 상경자의 비용까지 서너 배의 고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 복지와 관련하여 대학에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별 고사를 지원자들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몇 개의 지역군으로 묶어 각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안이다. 가령 경기, 서울, 충청, 전라, 경상권 등으로 나누어 동시에 다발적으로 시험을 치루는 것이다.

둘째, 대학별 고사 시행 시기에 맞춰 대학의 기숙사와 학생 식당을 무료로 개방하고 타 지역 거주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안이다. 수험생이 기숙사 수용인원보다 많으면 학교 인근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미리 예약하여 제공하거나 철도의 단체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리 예약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등 학생 수용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대학이 최대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학등록금만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비용의 부담이 크다. 특히 지방 거주 서울 재학 학생들은 등록금외에 기초생활비용과 주거비용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 많은 대학들이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꾸준히 시설 투자를 해오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학성적은 최상위권인데 기숙사 수용률 등은 최하위권인 대학들이 각종 대학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다.

III. 글을 마치며

요즘 대학들이 반값 등록금, 대학 구조조정 등 안팎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나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대학 진학에 관련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다른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과 대학 그리고 정책 입안자인 교육청, 정부 사이에 소통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만 내세우기 보다는 관계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안정적인 대안들을 도출하길 바란다.

필자소개

송 현 섭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송현섭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대구대 교육대학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했다. 용산고, 월계고 등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

사를 거쳐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대학 입학 및 진로교육 담당 교육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진로, 진학, 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 등이다.